

# 집은 꿈을 꾸는 작은 세계

House, small world of dream



공희정 | Kong, Hee-jung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장조시팀장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부터 나는 큰소리로 엄마를 부른다. “엄마, 엄마 아이아~~~” 그리곤 손을 높이 들어 대문 문고리를 잡고 탕탕탕 두드린다. 자동 개폐 장치가 흔하지 않던 시절, 엄마는 “그래, 기다려” 라고 하시며 대문으로 달려와 문을 열어주셨다. ‘빼jer억’ 한옥 대문에 걸린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 문이 열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의 환한 얼굴이 보인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드는 그 안도감, 집은 그렇게 불안한 즐거움이 있는 외부 세상에서 돌아와 안락한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초등학교 초반까지 살았던 집은 ㄷ자 모양의 한옥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장독대가 있는 마당과 수돗가는 항상 청결했고, 부엌에선 맛난 내음이 솔솔 퍼져 나왔다. 요즘 같은 여름날이면 넓은 대청마루에 벌러덩 누워 온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함을 즐겼다. 비오는 날이면 대청마루 한켠에 있는 뒤주 위에 올라 작은 창문으로 뒷집 마당을 보았다. 마당에 꽃밭이 있던 뒷집, 빗방울이 나뭇잎에 부딪는 소리가 멋진 음악 같았다.

가을이면 문이란 문은 모두 떼어 마당에 가득 펼쳐놓고 창호지를 바꿔 붙였다. 한 입 가득 물을 물고 ‘푸우’하며 물을 뿜어대던 엄마가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나도 따라하겠다고 물 한 모금 입에 물어 보았지만 입 힘이 약한 나는 제대로 뿜어보지도 못하고 지르르 흘러버리고 말았다. 일 년 동안 우리 식구들의 가림막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빛바랜 창호지는 곱게 곱게 벗겨지고, 깨끗하게 닦인 나무 창틀 위엔 하얗고 보송한 새 창호지가 곱게 내려앉았다. 마지막 화룡정점(畫龍點睛)은 문고리 부근에 붙이는 빨간 단풍잎. 비로소 문은 새로운 한해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 한옥에서 양옥집으로 이사 오면서 운치와 편리함은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 화장실이라 부엌은 마루에서 직접 드나들 수 있어 편리해졌고, 한겨울 코끝을 시리게 한 옷풍도 없는 양옥집은 따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뻑으로 지어진 한옥집이 생각났던 것은 태어나 자란 그 집이 나에게겐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옥을 볼 때마다 나는 괜히 좋다.

“사람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꿈을 담은 공간이 집입니다.” 드라마 「개인의 취향」\*은 이렇게 집을 말하고 있다. 건축업계의 독보적 존재이자 기인인 박철환 교수의 딸 박개인과 욕심 많은 건축사 전진호의 달콤 상큼한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는 한옥이 등장한다. 상고재(相姻齋), ‘서로를 연모하는 곳’이란 이름의 이 집은 박 교수가 “아내와 아이가 꿈을 꿀 수 있게 만든 곳”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남북으로 긴 집이 있다. 전통 한옥에 현대식 편리함을 부여한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청

어려서부터 ‘태순이’라 불릴 만큼 텔레비전과 친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와 같은 라디오 심야 방송은 내 인생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준 거름이었다. 그래서 방송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다. 드라마 작가나 라디오 DJ가 되진 못했지만, 평생 방송계에서 전자파를 즐기며 살고 있다. 지금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근무중이며, 인터넷 조선일보에 <드라마 살롱>을 연재 중이다.

사랑, 전통, 욕망을 담고 있는 드라마 속 집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며, 삶이 투영되는 맑은 거울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 (Alain de Botton)은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고 그의 저서 「행복의 건축」에서 말했다. 공간과 희망의 일치, 바로 그곳이 꿈꾸는 곳, 집이다.

마루 앞으로 길게 뻗은 덧마루이다. 땅 속으로 다리를 내리고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고, 그 일부는 마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다. 덧마루 아래는 지하실, 강화유리로 천장을 만들어 지하실의 채광과 소통을 모두 가능하게 했다. 처마 끝에는 투명한 덮개를 내어 달아 비오는 날도 대청마루와 마당의 중간 참에서 보송한 하루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드라마의 주인공 개인과 진호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차를 마시기도 하고, 나란히 앉아 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스크린을 내려 영화를 보기도 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린 고단함을 풀어놓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갔다. 그렇게 사랑하며 꿈을 꾸었다.

요즘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옥은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서민적 개량 한옥. 대부분 소박한 일상이 담겨있다. 대청마루와 미닫이 문, 마당 쪽으로 문이 나 있는 부엌을 기본 뼈대로 한옥이 원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효성 지극한 아들내외와 그들을 보고 자란 손주 손녀들. 보통 삼대가 한 집 살림을 하니 식구끼리의 갈등과 이견은 서로의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혜롭게 해결된다. 마치 한옥이 자연스런 바람의 길을 갖고 있듯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순리에 따른다. 두 번째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여기는 종갓집.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일부 시설은 개조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한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고,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될 정도로 규모도 있다. 종갓집 어른들은 아직도 한복을 즐겨 입는다. 자손들은 좀 먼 거리이지만 싫은 소리 하지 않은 채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 안주인은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언제나 찾아오는 손님을 정성스레 맞이한다. 바깥주인은 문중의 대소사를 돌보는 총괄 책임자로 누구보다 참을성 많고 성실하다. 그들의 직업은 전통의 것을 지키는 사업을 하거나, 선생님 또는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가 많다. 마치 수백 년 한 자리에서 집안의 역사를 지켜온 종갓집처럼 말이다. 세 번째는 돈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상류층 고급 한옥. 세월의 흔적보다는 ‘최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고급 한옥은 양반들의 아흔 아홉칸 집을 흉내 내고 있다. 으리으리한 멋을 낸 한옥은 근사해 보이지만 어딘지 개운하지 않다. 뭉치지 않는 욕망의 열차를 탄 그 집 사람들에게겐 어쩔 수 없는 배신과 음모와 협잡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금력을 잡기 위해 풍수지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지은 집이지만, 탐욕에 물든 마음이 있어 본디 집이 갖고 있던 순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교훈만 남겨준다.



MBC 드라마 「개인의 취향」의 방송화면 중 상고재.

사랑, 전통, 욕망을 담고 있는 드라마 속 집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며, 삶이 투영되는 맑은 거울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 (Alain de Botton)은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고 그의 저서 「행복의 건축」에서 말했다. 공간과 희망의 일치, 바로 그곳이 꿈꾸는 곳, 집이다. 圖

\* 「개인의 취향」 (MBC/2010). 손예진, 이민호주연 / 멋진 가짜 게이와 순진한 덜렁순이의 사랑과 우정,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드라마.